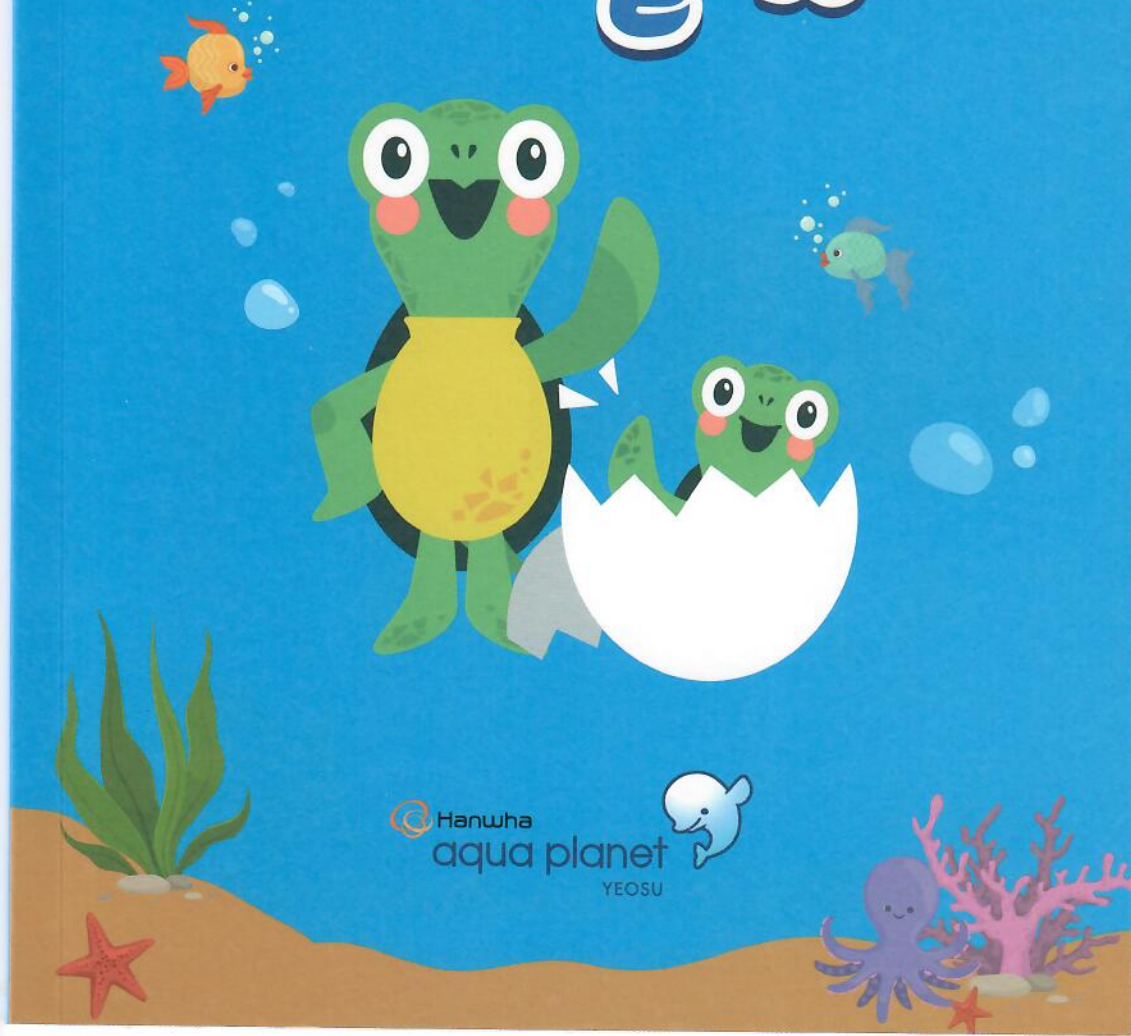


부기부기와 함께하는

바다거북 바로알기



Hanwha
aqua planet
YEOSU



거북이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바다거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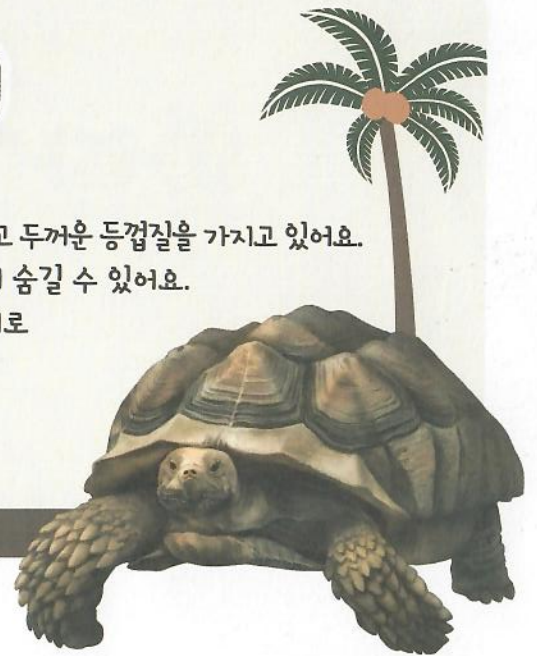


- 바다에 살아요.
- 다리는 헤엄치는데 적합하도록 지느러미처럼 생겼어요.
- 머리와 다리를 등껍질 안에 숨기지 못해요.
- 일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헤엄치며 살아요.
- 육지에서는 다리를 이용해 배를 바닥에 끌며 이동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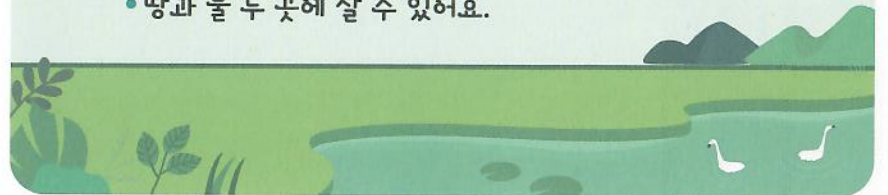
육지거북

- 육지환경에 살아요.
- 다른 거북들에 비해 딱딱하고 두꺼운 등껍질을 가지고 있어요.
- 머리와 다리를 등껍질 안에 숨길 수 있어요.
- 이동할 때에는 튼튼한 다리로 몸을 땅에서 띄워 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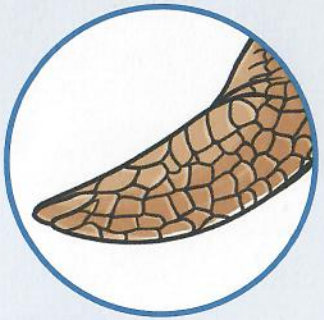


민물거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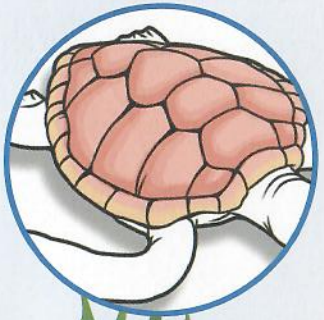
- 강이나 호수에 살아요.
- 발에 물갈퀴가 있어요.
- 육지에서 이동할 때 몸을 땅에 띄워 네 다리로 걸을 수 있어요.
- 땅과 물 두 곳에 살 수 있어요.



바다거북



물 속을 헤엄치기
적합하도록
지느러미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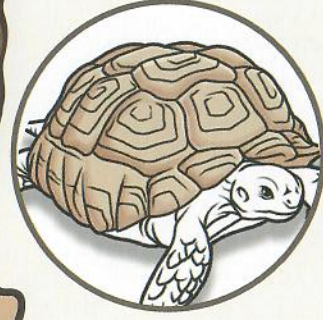
등껍질은 헤엄치기
적합한 유선형이고
목을 집어 넣을 수
없어요.



육지거북



땅 위를 걸어다니기
쉽도록
발톱이 발달한 다리의
형태를 하고있어요.



등껍질이 위로
솟아 있고
목을 집어 넣을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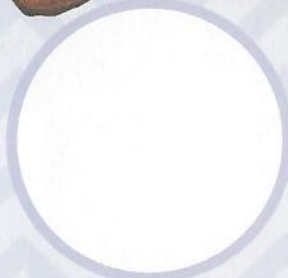


거북의 생김새

26페이지 부록스티커를
알맞은 위치에 붙여보세요.



딱딱한 등껍질을 가지고 있어요.



환경에 적응하여 지느러미처럼 변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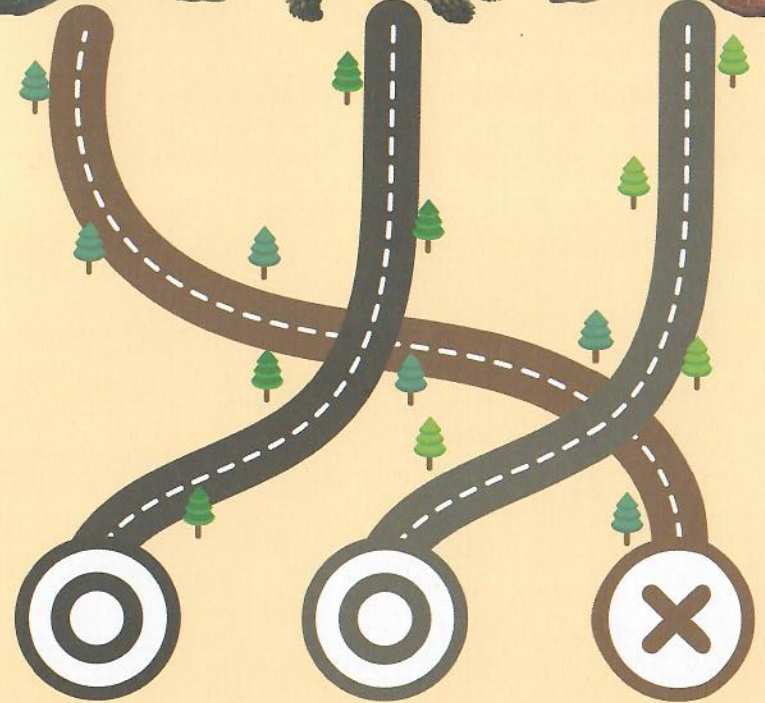
바다거북 부기부기와 함께하는 나도 거북박사

길을 따라가면 답을 맞힐 수 있어요.

머리와 다리를
등껍질 안에
숨길 수 있어요.

발톱이
있어요.

헤엄을 잘 칠수
있게 등껍질 모양이
유선형으로
되어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바다거북



바다거북은 전 세계적으로 7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4종의 바다거북이 살고있으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장수거북

바다거북 중 가장 큰 친구로 다 자라면
2m 이상 700kg까지 성장하기도 해요.

푸른바다거북

몸 속 지방이 푸른색을 띠고 있어
'푸른바다거북'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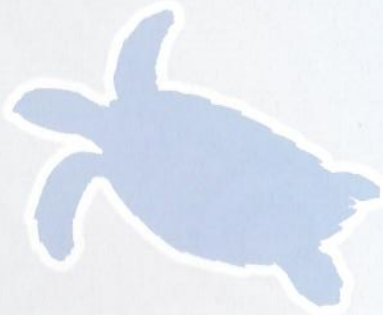
붉은바다거북

푸른 바다거북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육식성에 머리가 크고
등껍질이 붉은색을 띠고 있어요.



매부리바다거북

머리가 길쭉하며
입이 매의 부리처럼
뾰족하게 구부러져 있어요.



바다거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장수거북을 제외한 바다거북은 모두 비슷하게 생긴 듯 보이지만
머리비늘과 등껍질의 모양에 따라 종을 구분할 수 있어요.

머리비늘

등껍질

장수거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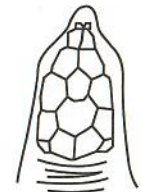
푸른바다거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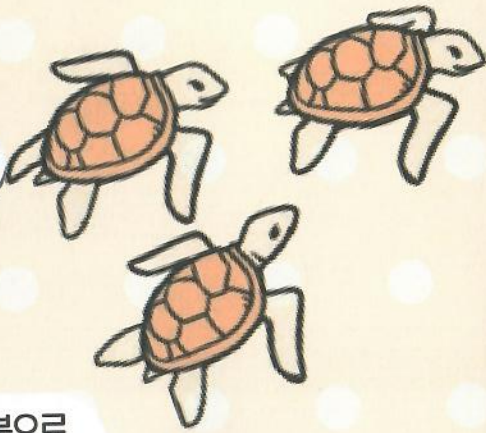
붉은바다거북



매부리바다거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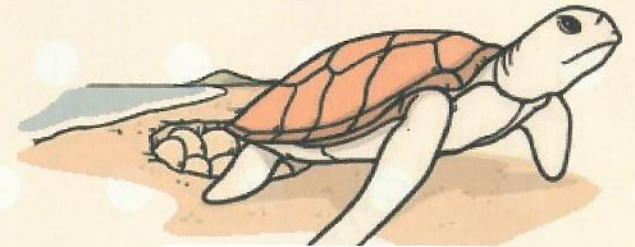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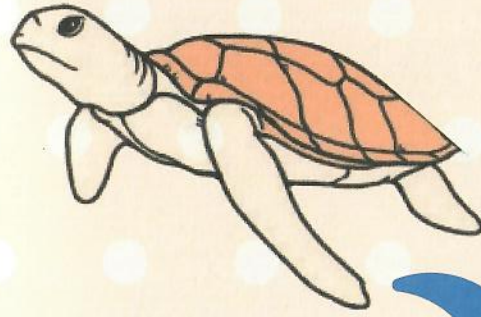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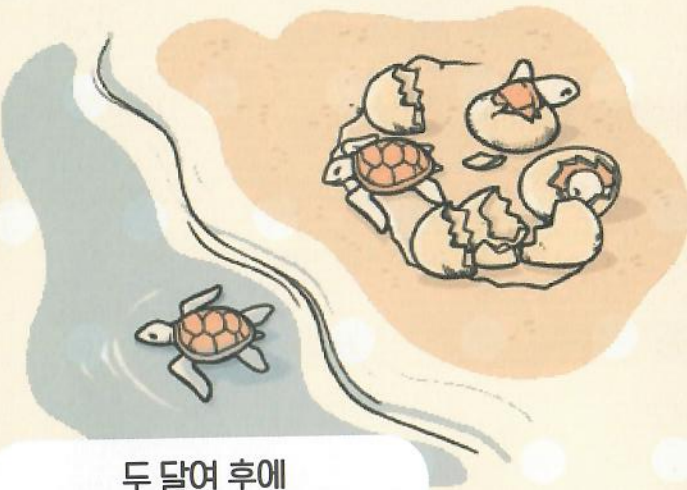
바다거북은 어떻게 태어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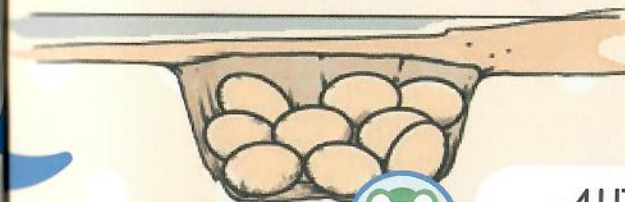
태어난 새끼들 중 어른거북으로
성장하는 거북은 10마리 중 1마리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해요.



두 달여 후에
새끼는 부화하게 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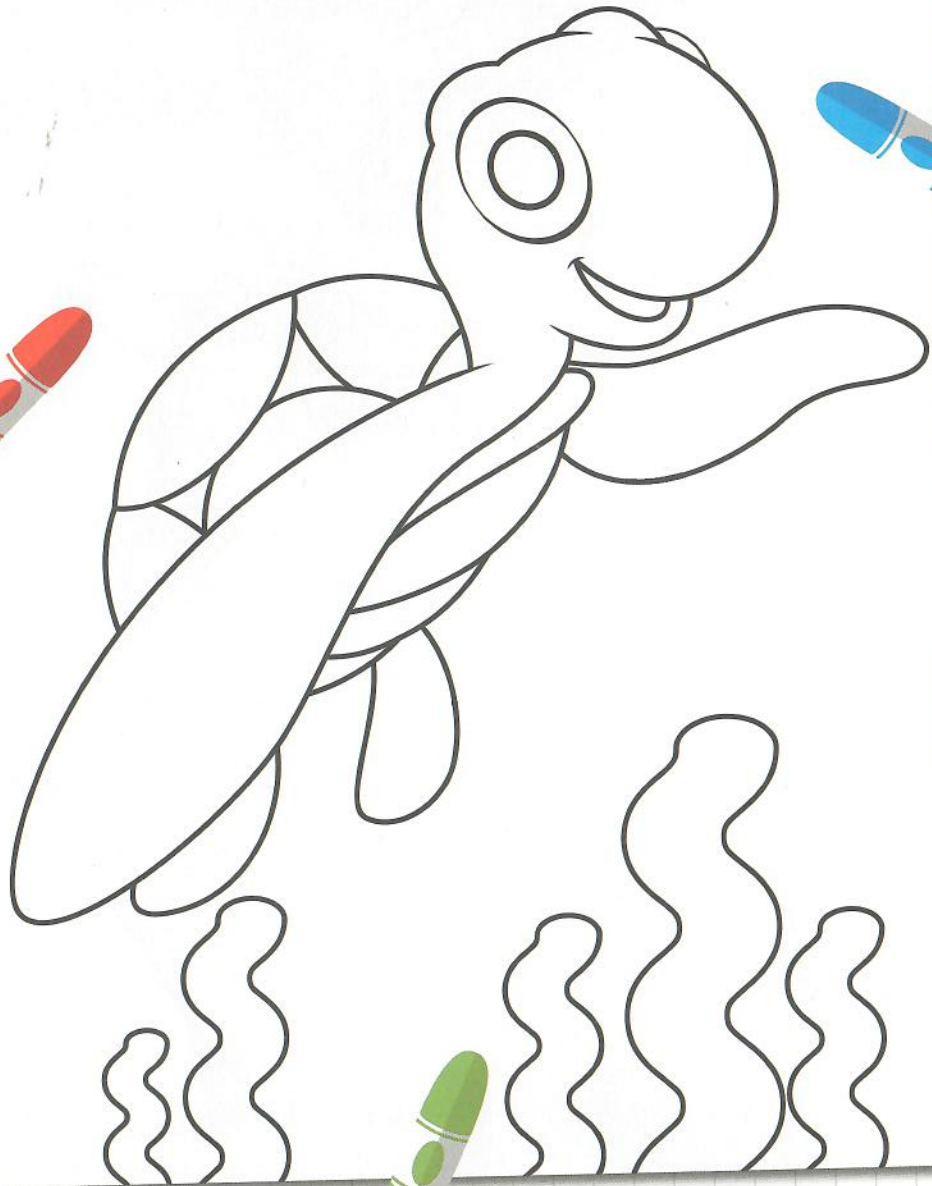
바다거북은 50cm 깊이의
구덩이를 판 후 산란을 해요.



4시간 정도에 걸쳐
40~200개 정도의 알을 낳아요.

나를 예쁘게 꾸며줄래?

바다거북을 색칠해 보아요.



무엇을 먹나요?

바다거북은 종에 따라 좋아하는 먹이가 달라요.

해파리



장수거북은 해파리를 아주 좋아해요.
해파리의 독이 있는 촉수로 인해 상처 입지 않도록 특수한 입 안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해초



푸른바다거북은 다시마, 김 등의
해초를 가장 좋아한답니다

조개·성게



붉은바다거북은 푸른바다거북과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식성은
육식성이라 조개나 성게를 즐겨먹어요.

말미잘



매부리바다거북은
부리처럼 생긴 뾰족한 입으로
해면이나 말미잘을 뜯어먹어요.



보호가 필요해요

도와줘~!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바다거북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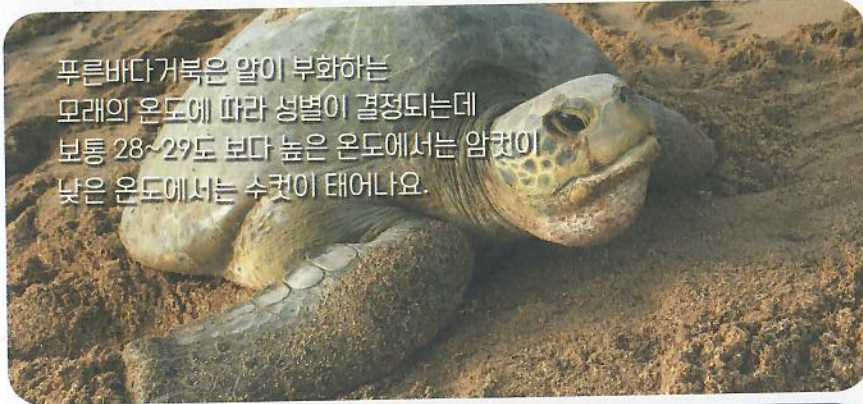


무분별한 개발로 바다거북이 알을 낳을 수 있는 해변이 줄어들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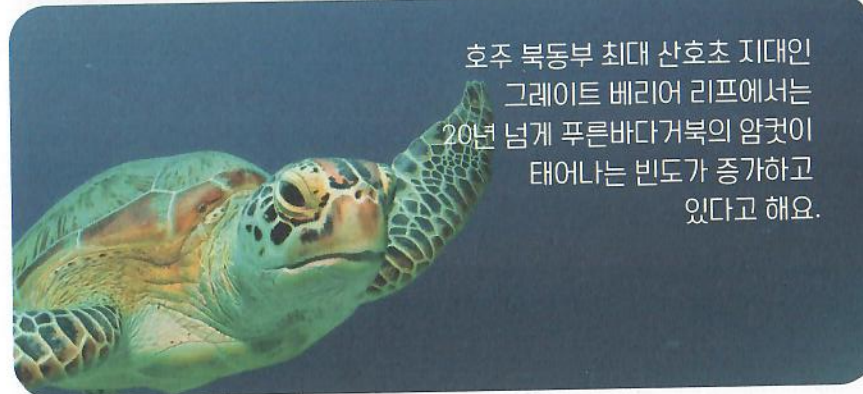


바다거북은 그물이나 낚시 어구에 걸려 숨을 쉬지 못하고 죽기도 해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바다거북의 위기



푸른바다거북은 알이 부화하는 모래의 온도에 따라 성별이 결정되는데 보통 28~29도 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암컷이 낮은 온도에서는 수컷이 태어나요.



호주 북동부 최대 산호초 지대인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서는 20년 넘게 푸른바다거북의 암컷이 태어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26페이지 부록 스티커를 떼어 붙여보아요



바다거북박사



왜 많은 바다거북들은 플라스틱을 먹는걸까?

구조된 바다거북의 대부분은 배 속에 플라스틱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플라스틱을 먹는걸까요?



바다거북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인

스티커 와 모습이 비슷해서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빨이 없어 꿀~쩍하고 삼키면
다시 빠져 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진
식도 때문에 플라스틱을 토해내지 못해
질식하는 바다거북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바다거북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알아보아요!



바닷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요.



지금까지 배운 것을 친구들에게도 알려줘요.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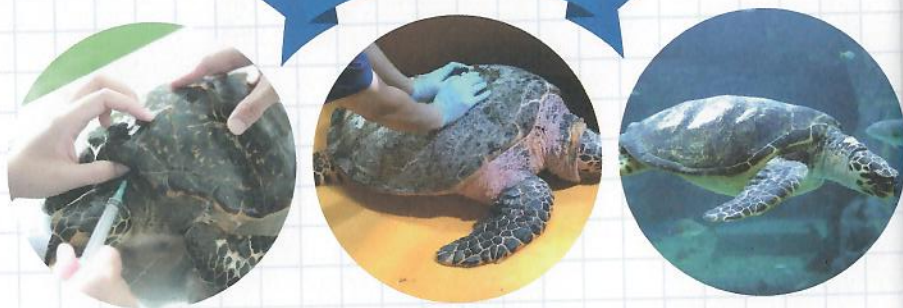
바다거북 보전을 위한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의 활동

서식지외 보전기관



멸종위기로 살 곳을 잃은 생물이 보전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요.

구조·치료기관



자연에서 상처를 입은 해양생물을 구조·치료하고 있어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15건 이상의 구조·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인공증식



인공적으로 부화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개체 수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요.
2017년, 2018년에 국내최초로 푸른바다거북과 매부리바다거북을
인공적으로 부화하는데 성공했어요.

바다거북 방류



구조·치료한 바다거북들과 인공증식을 통해 부화한 바다거북들을
2016년부터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고 있어요.

바다거북 부기부기와 찾아보는

여수 금개북 이야기

1 여수의 향일암과 남해 보리암 그리고 무인도인 세존도를 연결하는 삼각형의 중심에는 용궁이 있다고 해요.



2 용궁에는 용왕과 심부름꾼인 금빛 거북이들이 살고 있었어요.



3 1년에 한 번 금빛 거북이들은 축축한 등껍질을 말리기 위해 육지에서 7일간의 휴가가 주어졌어요.



4 거북이들은 늦지 않기 위해 시간을 알려줄 당번을 정했어요. 그런데 따뜻한 육지의 햇살에 취한 당번 거북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5 당번 거북을 믿고 마음 편하게 쉬던 거북들은 시간가는 줄 몰랐어요. 결국 용궁 문이 닫혀버려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6 거북들의 애원에도 닫힌 용궁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결국 거북들은 햇빛에 등껍질이 굳어가기 시작해서 마침내 돌이 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7 여수 곳곳에 용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굳어져서 바위가 되어 버린 거북들이 남아있어요.



“ 친구들아!
내가 깨끗한 바다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해주겠니?”



수료증

이름:

위 학생은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에서
진행하는 '바다거북 바로알기' 과정을
훌륭하게 수료하였음을 인증함.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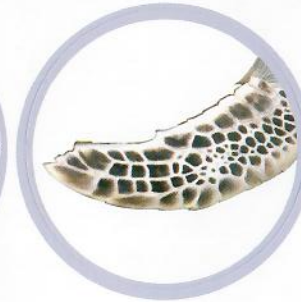
한화아쿠아플라넷
여수 관장(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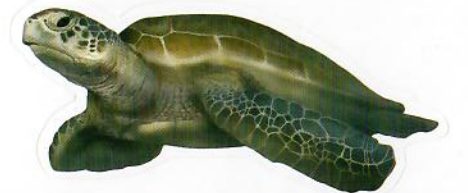
부록 스티커



5p 부착스티커



7p 부착스티커



15-16p 부착스티커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 평균기온이
점점 높아져 너무 더워요.

해파리

부기부기 스티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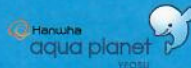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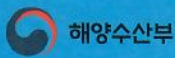
MEMO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12 horizontal lines. Each line consists of a solid top line, a dashed middle line, and a solid bottom line.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 및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서
해양동물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학습지는 해양수산부의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원사업비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